

‘소설 속의 시대’를 ‘역사 속의 시대’로

장정일의 《장정일 삼국지》

복원한 신新삼국지

글 | 서동훈

사람들은 왜 삼국지를 읽을까. 그것도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 되면서 우리 곁에 있지 않는가.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현상도 아니다. 일본과 중국도 삼국지는 늘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시대를 풍미하던 번역본이 그 힘을 다하고 사그러들 즈음 새로운 번역본이 나와 또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형태를 보이면서, 소설 삼국지는 항상 베스트셀러였다. 이를 테면 박종화 번역의 삼국지가 사랑을 받아오다 독자들로부터 멀어지면, 이문열 번역본이 나와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 2003년 여름, 황석영 번역본이다. 기존 시장을 지배하던 이문열 번역본이 사라지기도 전에 나타난 황석영 번역본도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것이 다른 시대와는 다른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여기에 최근 번역본이 아닌, 하나의 판본이라는 주장과 함께 출간된 것이 김영사의 《장정일 삼국지》이다. 기존의 삼국지는 늘 나관중의 삼국지를 번역한 것이지만, 장정일은 자신이 수백 권에 달하는 중국서적을 탐독하면서, 시대에 맞는 삼국지를 새롭게 해석해 썼다는 것이다. 이같은 장정일 삼국지도 출간과 동시에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모으는 품세가, 우리에게 왜 삼국지는 위력적일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삼국지의 위력은 무엇보다,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양한 전략가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들 전략가들이 구상한 전략을 전쟁터에서 실행하는 인물군상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박진감을 더한다. 마치 살아 있는 우리 현실세계와의 대비가 가능하다.

또 삼국지는 이들 인물들과 맞물려 돌아가는 전쟁을 비롯한 생생히 살아 있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들과 맥을 같이하는 양상을 보이는 소설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동탁이 한 여자에 빠져 실정을 일삼자, 당대의 맹장 여포가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던 주군을 죽인다. 이후 젊은 무사 이각과 광사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은 우리 현대사의 모습인 1979년 10·26과 너무도 유사하다. 이런 사건은 삼국지를 꼼꼼히 읽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독자들은 바로 이런 매력 때문에 삼국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장정일 삼국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씌어진 소설이다. 장정일은 등장인물들을 새롭게 해석했다. 이를 테면, 조조는 간악하고, 유비는 후덕하고 겸손하다는 기존의 성격을 뒤집었다. 즉 사건과 사안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흐름을 추적하는 원칙에 따라 좀더 소설적인 공감대를 만들었다. 기존 나관중 삼국지가 갖고 있던 무협소설적 요소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현대소설적 특징에 보다 접근해서 우리 앞에 내놓은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장정일은 기존 삼국지 번역본들이 재갈량이 마치 신통력을 발휘해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지리적, 혹은 자연적 현상에 접목해 해석하는 등 가일층 독자들에게 객관적 상황을 제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장정일 삼국지》는 당대적 사건을 오늘 우리 앞의 사건으로 중첩될 수 있도록 해석해서 썼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장정일 삼국지》 안에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동탁의 죽음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10·26' 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소설 속에서 당대의 영웅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상상과 너무 비슷한 것도 《장정일 삼국지》의 미덕일 것이다.

이와 함께 장정일은 '소설 속의 시대' 를 최대한 '역사 속의 시대' 로 복원하기 위해 객관적 고증에 충실했다. 이를 장정일은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재해석했다고 말했다. 즉, 모든 삼국지 번역본은 '황건적' 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은 '황건군' '황건농민군' 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시대의 변화는 민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중국도 모택동이 주도한 민란의 성공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장정일은 무협소설, 혹은 전쟁소설인 삼국지를 역사소설로 격상시킬 욕심을 부린 것이다.

더 나아가 장정일은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적인 바탕 하에서 왕권 수호를 위해 고안된 춘추필법으로 씌어진 삼국지는 역사의식이 부족한 만큼, 중국은 물론 주변국가들의 흐름 전체를 놓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의 삼국지에는 유독 '황건군' 의 활약상이 돋보이며, 소설 시작을 장식한다. 이런 흐름은 확실히 다른 번역본들과 차별성이 있다. 그의 노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장정일이 자신의 삼국지에 여성성을 뚜렷히 부각시켰다고 주장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장정일은 삼국지가 전쟁소설인 만큼, 여성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제대로 살아 있지 않아 나름대로 재해석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장정일 삼국지 역시 당대 여성의 역할이나 생활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 무수히 많은 삼국지 판본을 가진 데 비해, 우리는 오직 나관중 삼국지 판본 번역에만 매달려오다가, 새롭게 해석한 장정일 삼국지를 대하게 되는 기쁨은 남다르다. 우리 출판시장의 질적 팽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삼국지 소설시장도 그 옛날 중국 역사를 긴장시켰던 '삼국' 의 전쟁만큼이나 뜨거운 전쟁에 돌입한 느낌이다. ㉨

● 이 글을 쓴 서동훈은

문학박사로 대구미래대학 영상광고기획과 교수로 있다. 문학의 확장과 광고 및 영화분야에서 문학수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응용문학연구가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그는, 특히 《삼국지》를 응용문학의 보고라 확신하며 오래 전부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 《발상전환의 글쓰기》 《광고미술-커피의 세계》, 장정일, 김운희 씨와 함께 쓴 《삼국지 해제》가 있다.



10년 쌓은 인간적 신뢰로 그린

《파리아의 미소 한 불가촉천민의 인생사》

한 인도 천민의 생애

글 | 이광수

인도 전문가에게 2004년은 불가촉천민으로 시작되었다가 불가촉천민으로 끝나는 느낌이다. 벵두 인도 뭍바이에서 열린 제4차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들어 온 달리뜨 이야기가 한국 지성계에 널리 회자되더니, 이제 남부 인도 불가촉천민에 관한 수준 있는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파리아의 미소_한 불가촉천민의 이야기》. 제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왜 '달리뜨'가 아닌 '파리아' 일까에 대한 의문이다. 책 표제 부분에서 밝히고 있듯, 이 이야기는 스스로를 달리뜨, 즉 '억압받는 자' (자세한 해설은 이 책의 458-471쪽 참조 마산)로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경멸의 대상인 '파리아'로 여기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다. 그들이 역사상 어떠한 핍박을 받아 왔고 그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47년 독립 이후만 해도 약 300만에 달하는 달리뜨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고, 100만에 달하는 달리뜨들이 살해당했으니 (Pioneer, <http://www.dailypioneer.com> 2000년 1월 30일자) 그들이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화적 기득권에 대해 처절하게 항거하는 길을 택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인 비람마는 그 스스로를 항거의 주체, 즉 달리뜨로서가 아닌 죄 많은 천민, 즉 파리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순종의 삶, 바로 그것이다. 원저에도 없는 '미소'가 한국어 제목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주인공인 비람마는 초경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혼해 열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일하고 인간 이하로 대접받으면서 산다. 그럼에도 그는 전생의 업 때문에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이런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신분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힌두교적 윤회의 세계관에 얽매이고 순종하면서 산다. 그렇다고 자신에 대한 핍박에 철저히 눈이 감긴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하리잔이나 달리뜨로 부르면서 저항심을 키우고 있는 아들과 티격태격한다. 이러한 복잡 미묘한 사이에서 우리는 현재 인도 불가촉천민이 스스로의 정체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읽어들 수 있다. 불가촉천민의 목소리를 통해 - 과연 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학문적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 -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소중한 일차 자료다.

이 책은 인류학과 일부 역사학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생애사(life history)의 방법을 통한 삶과 역사를 재조명한 산물이다. 생애사가 학문적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한 인간의 생애를 짜여진 혹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틀의 당위적 형태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이야기로 복원하여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애사는 현재적 시



점에서 지나온 과거를 해석하고, 나아가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해석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실제 사회와 역사를 어떻게 조명하고 재구성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

이 책은 락신느 부부가 남부 인도의 뿡디찌리에서 비람마와 10년 동안 인간적인 신뢰로 교제하면서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비람마는 피조사자로서가 아닌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즉, 비람마는 단지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락신느 부부가 대필을 해준 셈이다. 그래서 세 명의 공동 저자로 자리를 매김한다. 저자의 주체적 관점과 전문 학자의 체계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저자들은 인도 사회와 문화의 깊은 내면을 다큐멘터리 찍듯이 묘사하고 있다. 인도인들의 혼사(婚事)와 장사(葬事)를 포함한 통과 의례, 신화와 전설, 주술, 축제, 농사, 노동, 인간관계, 카스트 조직과 같은 큰 일에서부터 음식, 욕, 속담, 노래와 같은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의 거의 모든 인도인들의 생활의 단면이 이 책 안에 촘촘히 기록되어 있다.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가 많은 현실에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이론과 담론이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일차적 자료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도 연구자가 처해 있는 수준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학자가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깊고 자세히 조사를 수행하고 그것을 결과물로 내보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던 참에 프랑스 인도 연구자들의 수준 높은 조사를 이렇게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반갑고 소중하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이 책의 역자는 한국의 인도 연구자 중 인류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표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유일하다는 것이 그리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없겠지만, 유일하게 남부 인도 사회를, 남부 인도의 대학에서 전공으로 수학한 학자다. 전공자답게 인도의 사회·문화 상황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번역되어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자의 문체 또한 매우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제목만큼이나 마음이 편안하다. 비람마의 그 투박함을 한글의 투박한 문장으로 옮기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는 역자가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의 욕심이리라. 그것은 분명 서로 다른 언어로 전환해야 하는 번역이 갖는 한계가 있음에도 빼어난 필치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꼭 언급해야만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류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와 불가촉천민에 관한 이야기들, 즉 불가촉천민에 대한 연구사, 인도에서의 불가촉천민의 기원과 변화의 역사, 불가촉천민의 생존권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치·사회 운동 등에 관해 좀더 상세한 해제가 붙었으면 하는 것 정도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글**

● 이 글을 쓴 이광수는

델리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에서 인도사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로 있다. 현재 한국인도학회 이사, 부산경남사학회 편집위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웅진), 《인도 문화 : 특수성과 보편성의 이해》(부산외국어대출판부)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인도민족주의의 역사만들기 : 섬스러운 암소 신화》(푸른역사) 《고대인도의 정치 이론》(이카넷) 등이 있다.



《파리아의 미소 한 불가촉천민의 인생사》

비람마, 조시안·락릭 라신느 지음 | 박정석 옮김 | 달팽이 | 472쪽 | 값 15,000원